

# ‘재보험’ 손해보험업서 분리... 경영시 감독당국 허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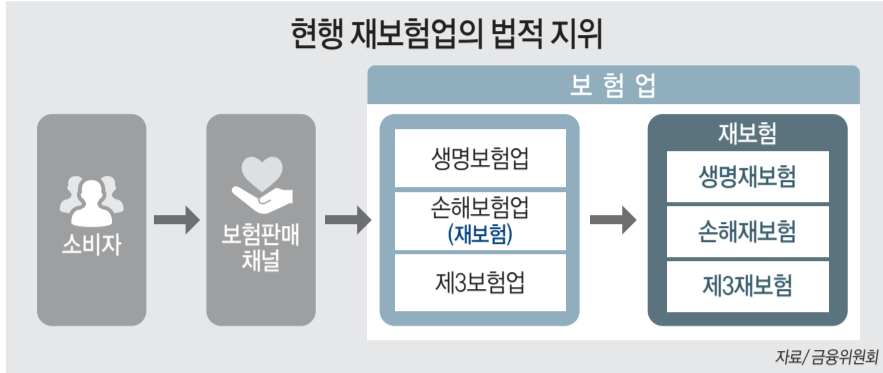
## 금융위 보험자본건전성 선진화 회의

손해보험업의 일부라는 인식 강해  
허가와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 해소

“전문 재보험회사 진입 유도할 것”

앞으로 재보험은 손해보험업에서 분리된다. 보험업 허가만 받은 보험사는 재보험 경영 시 감독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보험이 손해보험업의 일부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불필요한 규제가 적용되거나 금융감독의 검토없이 허가와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보험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5차 회의를 열고 이



는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보험은 보험계약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보험회사가 드는 보험으로, 보험사를 위한 보험을 말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재보험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사업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업의 일부라는 인식이 강했다”며 “재

보험을 보험업법상 별도의 보험분야로 분리해 전문 재보험회사의 진입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업법상 재보험은 손해보험업의 한 종목으로 재보험사에 대한 허가요건 영업행위 규제 등이 손해보험사와 동일하게 규제된다. 때문에 재보험사를 신규 설립할 경우 보험업 만큼 허가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모집을 위한 영업행위 규제 등이 과도하게 소비자 보호에 맞춰져 있어 진입이 어려운 측

면이 있었다.

또한 생명·손해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별도의 재보험 허가신청이 없더라도 재보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재보험업을 위한 사업계획 등을 금융감독의 검토없이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업 허가와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업법상 재보험을 손해보험업으로부터 분리한다. 재보험을 보험업법상 별도의 보험분야로 분리해 재보험에 대한 허가요건, 영업행위규제 등 여러측면에서 규제를 완화·차등화 하겠다는 설명이다.

재보험 허가간주제도 폐지한다. 재보험 허가간주제는 생명·손해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해당종목의 재보험에 대한 허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 보험업 허가만 받은 보험사는

재보험을 경영시 감독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보험회사는 재보험업 영위 의사와 영업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재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재보험업의 종목을 세분화한다. 재보험업을 ▲생명보험재보험 ▲손해보험재보험 ▲제3보험재보험 등 3종목으로 나누고 허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 등 허가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현행 재보험 허가를 위해 자본금이 300억원을 충족해야 했지만 종목 세분화 이후 종목에 대한 최저자본금요건을 100억원으로 인한다.

금융위는 오는 6월부터 재보험업 실무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행 보험업법상 규제가 재보험업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TF를 통해 검토된 세부내용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담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 1.6% ↑

238.4조... 지난해 말보다 3.7조 증가  
대출채권 연체율·부실채권비율 동일

올해 1분기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이 지난해 말보다 증가했다. 대출채권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은 전분기와 같았다.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2020년 3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38조4000억원으로 전분기(234조7000억원) 대비 3조7000억원(1.6%)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121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000억원(0.1%)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이 1000억원(0.3%) 늘어난 반면 보험계약대출이 1000억원

(0.2%) 감소한 영향이다. 기업대출은 116조5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조5000억원(3.1%) 늘었다.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전분기(0.26%)와 같았다. 가계대출 연체율과 기업대출 연체율도 각각 0.57%, 0.11%로 전분기와 동일했다.

보험회사부실채권비율(고정미하여신/총여신)은 0.17%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가계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21%로 전분기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 기업대출 부실채권비율은 전분기(0.13%)와 동일했다.

/김희주 기자 hj89@

## 하나금융그룹, 유튜브 채널 손님중심 개편

쌍방향 소통 목표로 신규 기획

하나금융그룹이 공식 유튜브 채널을 손님 중심 채널로 새롭게 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룹 공식 유튜브 ‘하나튜브’는 일방적인 공급자 중심의 금융 정보 전달이 아닌 손님과 쌍방향 소통 등을 목표로 재미를 추구하는 콘텐츠로 신규 기획, 개편됐다.

주요 콘텐츠로는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등 그룹



하나튜브

/하나금융그룹

대표 금융경제 전문가들이 전하는 프리미엄 금융 토크쇼 ‘토크 원(ONE)’, 그룹 임직원들의 직무 소개와 그들의 소소한 회사 생활을 엿볼 수 있는 ‘하나 브이로그(Vlog)’가 있다. /나유리 기자

## “사고처리 교통비·렌터카, 직접 신청하세요”

삼성화재 간편요청 시스템 오픈

삼성화재는 자동차보험 사고처리 과정에서 고객이 직접 교통비나 렌터카를 신청할 수 있는 간편요청시스템을 선보였다고 1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고객에게 보내는 카카오톡 알림톡이나 문자 메시지에 링크를

포함시켜 원하는 서비스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링크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다.

기존에는 자동차보상직원에게 차량 수리기간 동안 지급되는 교통비나 렌터카를 요청해야 했지만 간편요청시스템을 이용하면 고객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김희주 기자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금융그룹

1997년 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지금,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10년만에 다시 찾아온 투자포인트

두근두근 가슴 뛰는  
재테크 역전  
만루홈런 프로젝트

하나고배당금융테크클럽

---

하나금융투자와 함께하는 2020 재테크 역전 만루홈런 프로젝트

하나고배당금융테크클럽

투자포인트

반도체, 스마트폰 등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상성전자’와 안정적인 고배당이 예상되는 ‘국내 3대 금융지주’에 함께 투자

할수유료 · 선취형 : 선취 0.7%, 후취 연 1.0% · 적립사형 : 후취 연 1.2%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m.hanaw.com](http://m.hanaw.com) | 1588-3111

[이벤트 유의사항] \*상품권에 대한 재세금과금 당사 부담 / 추정 경품에 대한 재세금과금 고객 부담 \*추첨 경품은 이벤트 종료 당일 영업점에서 수령가능 \*본 이벤트는 당사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음(단, 기간 중 고객 및 당첨고객 제외)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진 설명 청취 \*원금 손실 가능 \*예금자보호법상 보호상용 아닌 \*원금손실 발생 시 투자자 귀속 \*컴퓨터 인터넷은 고객 계좌별로 운용·관리되는 투자일임계약으로 계약별 운용상시점이 상이할 수 있음. 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0-01519호(2020.04.06~2021.04.05) CC노코드200402-0018

\*가입 EVENT [기간: 2020년 12월 31일까지]

구분	가입금액별 은누리 상품권 증정
거치식	1억원 5만원, 8천만원 4만원, 6천만원 3만원, 4천만원 이상 2만원, 4천만원 미만 1만원
적립식	1만원 (30만원, 12개월 이상 저축이체 손님)

\*추첨 EVENT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천억원 돌파 시마다 가입손님 대상으로 추첨, 럭셔리 기전을 선물로 드립니다

하나금융투자